사단법인 AJA 아시아기자협회
Follow The AsiaN Page
NEXT NEWS NETWORK THE ASIAN
English
Thursday 27 August 2020
ALL 아시아 » 코리아 » 오피니언 » 스포테인먼트 » 멀티미디어 » 플라자 »
아시아엔 소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기업 다자간 MOU 체결

August 26, 2020 이주형 사회-문화

<사진=포항시청>

㈜에이엔폴리 외 **7**개사**(451**억원**)** 지역에 재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 체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업 투자유치 '순항'
포항시, 바이오**.IT.**첨단신소재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6,848㎡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이다.

이번에 포항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총 8개사 중 7개사는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계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할 계획이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earch ...

많이 본 기사

1. [단독인터뷰] 국내 톱스타 남성 에로배우 민도윤씨 "그렇게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다"
2. [13,058자 전문] 문대통령에 직언 '진인 조은산 시무7조 상소문'
3. [오늘날씨] 태풍 '바비' 북상으로 전국 비…제주·전남 강풍
4. [오늘날씨] 무더위 속 태풍 '바비'로 전국 강풍 동반 많은 비
5.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춤추는 까닭

최신 기사

1. 주식농부가 동학개미들께 드리는 3가지 '제안'
2. [베이직 묵상] 태풍 '바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으켜주소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자금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포항시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 ㈜바이오컴(대표 류봉열), 포항TP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이너센서(대표 강문식), ㈜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 ㈜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이며, ㈜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Share this:

Tweet Share 0 Telegram

Leave a Reply

Enter your comment here...

3. [13,058자 전문] 문대통령에 직언 '진인 조은산 시무7조 상소문'
4. [역사속 오늘 8.27] 테레사 수녀 출생(1910)·코미디언 이주일씨(2002)·구봉서씨 별세(2017)
5. [오늘날씨] 무더위 속 태풍 '바비'로 전국 강풍 동반 많은 비

칼럼

알파고 시나씨
북마케도니아 나토 가입 및 한국과 수교 뒷얘기

아시라프 달리
[특별기고] 이집트 사회를 위협하는 3가지 바이러스

아이반 림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의 차남 리셴양, 총선 '와일드 카드' 될 수 있을까

이강렬
'코로나시대' 미국 대학 합격, 실력만큼 '전략' 중요…'얼리'에 신경쓰길

이상기
[책산책] 코로나시대 필독 희곡집 '낙하산'

난 괜찮아, 할아버지 선풍기 해

INU 인천대학교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국립 인천대학교

지금도 전국 8만 6천명의 아이들이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WorldVisionKorea

상호
제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35 화수회관 207호 / 전화: 02-712-4111 / 팩스: 02-718-1114 / 이메일 news@theasian.asia
발행인·편집인: 이상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주형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ntact Us]